



새끼 호랑이들의 파이팅

21일 오전 광주 신양파크 호텔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 2006 납회식에서 신인 선수들이 필승을 다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위진표기자 jvivi@kwangju.co.kr

“젊은 선수들 기량 향상 돋보여”

■ KIA 납회식 참석 서정환 감독 인터뷰

“젊은 선수들의 빠른 기량 향상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21일 오전 신양파크 호텔에서 KIA의 납회식이 열렸다. 지난 23일부터 27일간 일본 미야자키로 자율훈련을 떠났던 1.5군, 2군 선수 38명이 지난 19일 귀국함에 따라 2006 시즌 폐막 이후 KIA 선수단 전체가 모처럼 한 자리에 모인 것. 호랑이 가족들은 이날 다사다난했던 2006시즌을 정리하고, 2007시즌의 필승을 다짐하는 자리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 특히 이번 미야자키 자율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의 겹겹이 그늘진 얼굴에서 그동안의 훈련강도를 짐작케 했다. KIA는 올 시즌 폐막 직후 남해캠프 마무리 훈련을 비롯해 다양한 자율 훈련 등 그 어느해보다도 일찍 훈련을 시작했고, 훈련 강도를 높였다.



좋아하는 투구폼을 찾았다. 또 이동현도 볼 컨트롤 부분이 많이 보강됐다. 야수는 단연 손지환이다. 주로 수비위주로 훈련을 했는데, 수비가 많이 부드러워졌다. 물론 타격감도 상승중이다. 이 밖에 그레이싱어를 대신할 선발감을 탐색중인데, 윤석민의 투구감이 좋아 일단 선발 훈련을 시키고 있다. 아직 선발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좀 더 지켜본 뒤

“전병두 자신이 좋아하는 투구폼 찾았다”

20대 초반의 젊은 선수들이 주축을 이룬 KIA는 이번 훈련기간 동안 개인의 기량을 높이는 데 집중했고, 남은 훈련기간에는 실전 위주로 팀 전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다음은 서정환 KIA 감독(사진)과 일문일답. -그동안 훈련 성과는 무엇인가. ▲투수들은 강도높은 훈련으로 체력을 끌어올렸고, 타자들은 수비 위주의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혼연일체가 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낸 것과 젊은 선수들의 빠른 기량 향상이 가장 큰 성과다. -이번 캠프에서 선수들에게 특별히 강조한 것은. ▲적은 내부에 있다는 점이다. 팀내 생존 경쟁에서도 살아남지 못한다면 당연히 타 구단과의 싸움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 각 포지션별로 2~3명의 선수를 두고 훈련을 시킨 것도 이러한 생존 법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시즌은 ‘이름’이나 몸값으로 선수를 선발하지 않겠다. 철저히 실력 위주로 갈 1군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눈에 띄는 신인이나 기량이 크게 발전한 선수는. ▲투수중에선 전병두의 실력 향상이 가장 돋보인다. 자신이

코칭 스태프와 상의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신인은 아직까지 즉시 전력감으로 쓰기에 역부족인 듯 싶다. 조금도 지켜봐야겠다.

“명성 보다 철저한 실력 위주로 선발”

-앞으로의 일정과 팬들에게 인사 한마디. ▲우선 약간의 휴식을 취한 뒤 내년 1월 5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간다. 1월 15일에 투수 1진이 팔로로 마무리 훈련을 떠나고, 나머지 투수들은 19일부터 일본 미야자키에서 훈련을 갖는다. 야수 본진은 같은달 26일 미야자키에 합류한 뒤 3월 9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선 자체 홈백전 등 실전 감각을 익히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젊은 선수들이 많아 다양한 경험을 쌓게 중요하다. 또 시즌 도중 드러난 선수들의 약점을 교정하는 것도 중요한 훈련 목표다. 끝으로 내년 시즌에도 포스트시즌에 진출, 팬들에게 사랑받는 KIA가 되도록 하겠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NBA 고공 다툼

뉴올리언스-오를라호마 시티 호네츠의 크리스 폴(배번 3)이 21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올랜도 매직과의 미 프로농구(NBA) 정규시즌 경기에서 덩크 슈트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선수협 ‘훈련규정 위반’ KIA·SK·현대 징계요구

‘프로야구 규약을 위반한 KIA, SK, 현대를 징계하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비활동 기간(12월~1월)내 합동훈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나진군 선수협 사무총장은 21일 “최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12월 합동훈련으로 규약을 위반한 3개 구단에 대해 징계 요구

공문을 보냈고, KBO의 조치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선수협이 KBO에 징계를 요청한 3개 구단은 KIA, SK, 현대. 선수협에 따르면 SK는 현재 일본에서 마무리 훈련 중이고, 현대는 태국에서 12월 12일까지 훈련을 한 점을 규약 위반으로 꼽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또 KIA는 일본 미야자키에서 자율 훈련 뒤 지난 19일 귀국했다. 나진군 총장은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수차례 경고를 했지만 구단들이 막무가내로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일부 선수들의 불평도 나오고 있어 징계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MLB 내년 평균연봉 300만달러 넘을듯

미국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연봉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빠르면 내년 시즌 300만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미국프로야구 선수노조는 21일(한국 시간)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선수들의 평균연봉을 조사한 결과 지난 해보다 9% 상승한 269만9천292달러라고 발표했다. 평균연봉은 지난 8월31일 기준으로 팀별 40인 로스터와 부상자 명단에 오른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메이저리그

커미셔너 사무국의 조사와는 계산방법이 달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단별로는 뉴욕 양키스가 695만달러로 지난 해(739만달러)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8년 연속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428만달러로 지난해 9위에서 2위로 도약했고 보스턴 레드삭스는 399만달러로 3위였다. 반면 플로리다 말린스의 평균 연봉은 올해 메이저리그 선수 최저연봉(32만7천

달러)과 큰 차이가 없는 59만4천722달러에 불과해 최하위였다. ‘투자=성적’이라는 등식에 따라 고액 연봉 구단 대부분이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평균연봉 상위 10개 구단 중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380만달러)만이 76승85패로 승률 5할을 밑돌았다. 또 하위 12개 구단 중에서는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87승75패로 유일하게 승률 5할을 넘었다. 포지션별로는 3루수가 평균 587만달러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했고, 1루수는 578만달러, 지명타자 559만달러, 외야수 488만달러 순이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두산, 김선우 영입 실패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가 미국에서 뛰고 있는 우완투수 김선우를 잡는데 실패했다. 우완투수 박병환이 최근 LG와 계약하면서 다급해진 두산은 영입 협상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미국에서 김선우와 직접 접촉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고 21일 밝혔다. 김승영 단장은 지난 19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이틀동안 김선우를 만나 구단 최고 대우를 제시하며 국내 복귀를 설득했다. 하지만 김선우는 구체적인 조건조차 요구하지 않고 메이저리그에 대한 재도전 의지를 밝혀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김승호 두산 운영팀장은 “김선우가 지금이 국내에 복귀하기에 적합한 시기로 생각했지만 메이저리그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면서 “앞으로 김선우와 다시 협상을 벌일 계획은 잡아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승영 단장은 지난 16일에도 김경문 감독, 김태홍 운영홍보부장과 함께 김선우의 부친인 김대중씨를 찾아 국내 복귀를 설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함평다이내스티 등 전국 골프장 47개소

함평다이내스티골프장을 비롯 올 겨울 전남내 대부분 골프장이 정상영업을 하는 등 전국 골프장 가운데 47개소는 휴장없이 운영하면서 내장객을 받는다. 21일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전국 회원사 골프장을 대상으로 동계휴장계획을 조사한 결과 66개 골프장은 휴장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47개 골프장은 휴장없이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알려졌다. ▲휴장 없는 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 경주신라, 골드레이크, 광주, 그랜드, 남광주, 뉴스프링클, 대구, 동고, 동래베네트, 라온, 레이킬스제주, 로드랜드, 롯데스카이힐제주, 마우나오션, 보라, 부곡, 부산, 블랙스톤, 상패힐익산, 서라벌, 선산, 선운레이크밸리, 센추리21, 수원, 시그너스, 아시야드, 아크로, 에이원, 엘리스안, 오라, 오션뷰, 오크밸리, 용원, 인천국제, 임페리얼레이크, 정산, 중문, 진주, 창원, 천안상록, 클럽900, 태광, 봉도, 파인밸리, 해운

겨울휴장 없다

대, IMG내셔널 ▲휴장계획 골프장 12.11일~2.28일 : 마이디스밸리, 12.18일~2.22일 : 강촌(클럽하우스 증축), 12.25일~2.28일 : 곤지암(교육), 2.5일~9일 : 파인힐스(직원연수, 코스보수), 12.26일~2.9일 : 양지파인, 1.1일~31일 : 문경레저타운, 1.1일~2.15일 : 클럽비전힐스, 1.1일~2.16일 : 안양베네트(1월 전면휴장, 2월 주말개장), 1.1일~2.23일 : 렉스필드(해외연수 2.5일~9일, 워크숍(2.20일~22일)), 세븐스 가평베네트 이스트밸리(카트도로 공사, 락카 확장), 1.1일~2.28일 : 덕평힐뷰(승용카트도로 공사, 남작라카 리모델링), 팔공 남부(클럽하우스 인테리어공사), 1.2일~4일 : 태인, 1.2일~12월 : 발안, 1.2일~31일 : 필로스(캐디 기숙사 리모델링, 직원연수교육), 1.2일~2.2일 : 안성(토,일요일개장) 등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